

세이비어 교회 소식

1.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2월 구역예배 안내
2월 구역예배를 각 구역 별로 드리고 구역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일터 심방 안내
일터 심방 중입니다.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이 있으시면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친교 안내
오늘 친교는 플라싱 구역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주 친교는 우드사이드 구역에서 준비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2/10		배인순	플라싱	한순자
2/17	배한우	이경희	우드사이드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지하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5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후 1:15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방학중)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예수님의 기준 - 언어
본문: 마태복음 5장 21~26절

- 기도제목: 1. 하나님 나라의 높은 기준과 수준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2.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해치는 곳에 사용되지 않게 하소서.
3. 서로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미국 땅에서 살아가며 미국의 법과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갈 때, 이 나라의 법과 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십계명의 6번째 계명 - 살인하지 말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구약 율법 10계명 중에 6번째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사실 이 계명은 어기는 것 보다는 지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왜 이 계명이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인가? 아마도 10계명 가운데 ‘가장 지키기가 쉬운 계명이고, 대부분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라고, 정말 지키기 쉬운 계명인가요?

2.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인’이라는 기준과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살인이라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3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를 품는 것,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을 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살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살인의 동기, 원인, 출발점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살인이라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출발점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포함시키셨습니다. 누군가 미워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대상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범인이 잡히면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이 오늘날의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해자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일의 처음 출발부터 살인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은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언어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3.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상처를 준 경우나, 상처를 받은 경우 둘 다 똑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던지, 용서하던지, 빨리 그 문제를 풀고 화해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너희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문제가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당장 그 형제에게 달려가, 그 문제를 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왜 용서를 빌라고 하시는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 법과 기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높은 기준과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수준 높은 언어생활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수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기도 사무엘상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기도: 배인순 권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32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5번(시편13편)	
찬 송 Hymn	356장	
기 도(Prayer)	허도행 집사	
성 경 Scripture	마태복음 5장 21~26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예수님의 기준 - 언어	토요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호세아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514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2,3월 행사안내

2월 17일(주일) - 구역예배 모임,
3월 5일(화) - 뉴욕 밀알 화요 모임

교회 지원단체

뉴욕 밀알 선교단, 주님의 식탁, 뉴욕 농아인 교회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